

보도시점 2025. 11. 06.(목) 11:00
11. 07.(금) 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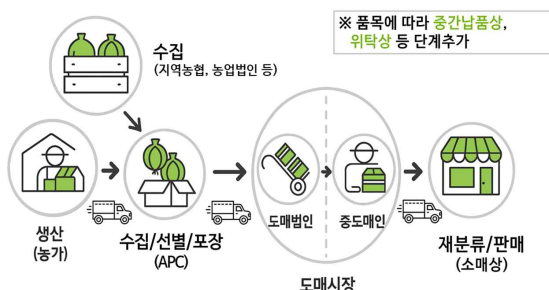
배포 2025. 11. 06.(목) 09:00

온라인도매시장, 지역 마트 등 직접 참여해 유통 비용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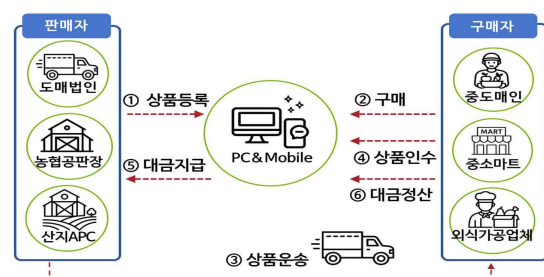
경기도 소재의 중소형마트인 엔마트는 지난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제주도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과 감자 신규 거래를 체결하였다. 양측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했으며, 물류도 산지에서 소비지로 바로 배송됐다. 이 거래는 최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지역 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시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지 유통·소매업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유통경로이다. 프랜차이즈·식자재마트·온라인 소매업체 등 다양한 소비지 주체들이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직접 참여하여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농산물이 산지에서 도매 시장 거래를 거쳐 소비지로 이동하는 다단계 유통구조였다. 하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하면 거래 상품이 산지에서 소비지로 바로 배송되어 도매 시장 반입, 상하차, 재포장 등 중간 물류 과정이 생략된다. 이에 따라 운송·포장 등 부대비용이 줄고, 상품 신선도와 가격 투명성은 높아진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온라인도매시장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에는 전국 약 5,300여 명의 판·구매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누적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하였다. 최근 식자재마트·프랜차이즈·온라인소매업체 등 소비지 기반 기업의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중소형 유통업체도 안정적으로 원물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소매 플랫폼 ‘온브릭스’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충북 소재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산지를 발굴하여 도매시장 경유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기존 오프라인 거래 대비 유통비용률이 14.3%p 감소하고, 농가 수취가는 7.7%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 음료용 생과일을 납품하는 KG케미칼은 이번 여름 기존에 도매시장을 통해 물건을 공수해오던 방식을 벗어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하여 신선한 통수박을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는 방식으로 직거래 전환에 성공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물류 효율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남 거제 소재 일부 슈퍼마켓은 그동안 취약한 물류 여건으로 인해 오프라인도매시장에 의존해 왔으나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이후 다품목 소량배송이 가능해지며 거래 만족도가 높아졌다. ‘경남거제슈퍼마켓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구매 방식의 직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파프리카·양파·계란 등 품목을 다양화한 결과 합배송을 통해 기존 대비 12.4%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확인되었다.

농식품부 박은영 유통정책과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은 시·공간 제약을 벗어난 플랫폼 기반 시장으로, 기존 오프라인 도매거래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주체들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9월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한 이후 중소기업 신규 가입과 거래 성사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면밀히 살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존)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 (‘25.9월) 10억원 → (‘26.9월) 면제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01-2211)
		담당자	사무관	정희선 (044-201-2218)